

대학생의 성별 및 MBTI 선호지표에 따른
자아상태 연구

University Students' Types of Ego-gram by
Gender and MBTI Personality Types

이 순 주 (Lee, Soon-joo) *

(E-mail : Soonjoolee@hanbat.ac.kr)

김 광 자 (Kim, Kwang-ja) **

(E-mail : kwangjakim@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08년 11월 1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26일

* 학위취득대학 : Moscow State University

현직: 한밭대학교 교수

** 학위취득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현직: 서울여대 아동학과 시간강사

대학생의 성별 및 MBTI 선호지표에 따른 자아상태 연구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번(Berne)의 성격이론에 기초한 Ego-gram 검사와 융(Jung)의 심리이론에 기초한 MBTI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성별 및 MBTI 선호 지표에 따른 자아상태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자아상태는 성격의 심리 기능 유형에 따라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며, 성격적 특성이 자아상태의 에너지 분배와도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생의 성격경향성과 자아상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자아상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상태(FC)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각 성격측면별로 나타나는 대학생의 성격경향성이 이들을 둘러싼 학습과 환경의 요인들과 가미되어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자아상태, 성격, Ego-gram, MBTI검사

I. 문제제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체계인 자아개념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트리안디스(Triandis 1989)에 따르면 자아는 정보를 표집, 처리 평가하는 방식과 사회적 역동에 영향을 주며 태도, 신념, 의도, 규범, 역할, 가치 모두가 자아의 한 측면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마쿠스와 기타야마(Markus & Kitayama(1991)는 자신의 경험이나 행위를 평가, 조직,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자기 관련도식을 자아체계라고 보고, 개인내적과정에서는 자아관련 정보처리, 정서조절, 동기부여를 조절하고, 개인외적과정 즉 대인과정에서는 대인지각, 사회비교, 사회적 상호작용 형성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이코그램(Egogram)은 Eric Berne이 개발한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중에서 구조분석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아상태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고 이 속에 흐르고 있는 심적 에너지의 급부상황을 그래프화하여 시각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듀세이(Dusay 1972)의 에너지 항상성 가설에 의하면, 각 개인의 성격은 자아상태를 통해서 기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아상태는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자아상태의 형태를 일반화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심리적 에너지가 아주 적절하게 배분된 균형잡힌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성격은 종(bell)모양의 형태를 나타낼 것이며 반면에 현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아상태는 'U자형'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Dusay 1984; 송현중 1998) 실제로 듀세이(Dusay 1977)는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검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병래(1998) 또한 Jung의 이론에 기초한 성격유형과 번(Berne)이 분류하고 있는 자아상태 유형 간의 관련성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가정과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아상태는 대학생의 자아상

태 및 성격, 나아가 인간관계와도 체계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변(Berne)의 교류분석이론과 융(Jung)의 심리유형론에 기초하자면 한 개인이 지니는 심리적 에너지의 양은 관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측정 가능한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 성격 전체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중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한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여러 통문화적 비교 연구(cross-cultural studies)에서는 양육 방법이 성차적 행동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Waldrop & Halverson 1975; Harway & Moss 1983; Block 1970)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성차에 따른 행동 양식 기대와 양육 방법이 한 개인의 성격경향성과 자아 개념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방희정(1996)과 이순형(1995, 143), 장휘숙(1996, 12)의 연구에서 남녀에 대한 전형적인 성격 특성이 정리된 바 있으며, 성은현(1998)과 조숙자(1996), 베스트와 윌리엄(Best & Williams 1993)의 연구에서는 남녀에 따른 자아상태에서의 차이를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MBTI와 Ego-gram을 통하여 내담자의 기질과 자아상태간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김소영 1998)와 의료인을 중심으로 MBTI 성격유형과 Ego-gram의 자아상태와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남경숙 1995)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서준석 2001) 등이 있기는 하나 Ego-gram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아상태와 MBTI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격경향성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상태와 성격경향성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앞서 진행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에릭슨(Erikson 1968)의 심리 발달 단계 중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하비허스트(Havighurst 1968)는

이 시기를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발달과업을 지닌 시기로 보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아개념이 발달됨과 동시에 사회적 인지능력 및 인간관계 능력이 확대되어 생산적이며 건전한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이숙 2003).

이 시기가 갖는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자기존재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는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 원욕의 욕구와 초자아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자아는 이 양자 간의 새로운 균형을 성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신정혜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번(Berne)의 성격이론에 기초한 Ego-gram 검사와 융(Jung)의 심리이론에 기초한 MBTI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성별 및 MBTI 선호 지표에 따른 자아상태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자아상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자아상태는 MBTI 선호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 대학생의 자아상태는 에너지의 방향(E-I)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대학생의 자아상태는 정보수집방법(S-N)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대학생의 자아상태는 판단방식(T-F)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대학생의 자아상태는 생활양식(J-P)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H대학교 1학년 재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검사결과 오류를 보인 학생이나 반응누락자 48명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297명 중 남자는 121명(41%), 여자는 176명(59%)이었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BTI 및 자아상태 검사는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검사지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검사는 먼저 이고그램(Ego-gram) 질문지를 이용한 자아상태 검사부터 실시되었으며 1주일 후 MBTI 검사가 실시되었다. 자아상태 검사는 약 20분이 소요되었고, MBTI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35분 정도였다. 학생들의 혈액형은 본인의 응답으로 파악하였다.

2. 검사도구

1) 이고그램(Ego-gram Check List) 점검표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Berne의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이고그램 점검표(Ego-gram Check List)는 한국교류분석협회의 우재현(1993)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신뢰도는 .74이며,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84기준에 의한 타당도 .87 개념 타당도 .84로 보고되어 있다(한국교류분석협회, 1994).

이고그램점검표는 5개의 지표마다 10문항씩 모두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비판적 아버지 자아상태(CP), 양육적 아버지 자아상태(NP), 성인 자아상태(A),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AC), 자유스러운 어린이 자아상태(FC)에 관해서 10문항씩 배정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5점 평정 척도)로 각 지표 당 50점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에너지가 그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검사

MBTI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성격경향성을 측정하였다. MBTI 한국어판은 김정택과 심혜숙(1991)에 의해 표준화 되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밝혀진 한국어판 MBTI의 신뢰도 지수를 보면, 반분신뢰도 EI 지표가 .77, SN 지표가 .81, TF 지표가 .78, JP 지표가 .82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86, .85, .81, .88로 더 높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현재 쓰이고 있는 MBTI 한국어판 검사지는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G형이며, 자동채점식인 GA형과 자기 채점식인 GS형으로 구분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 채점식인 GS식을 사용하였다.

3.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는 검색과정을 거친 후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와 성격경향성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

대학생의 자아상태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서 보듯이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상태(FC)를 제외한 나머지 즉 비판적 아버지 자아상태(CP)와 양육적 아버지 자아상태(NP), 어른 자아상태(A),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AC) 모두에서 남녀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즉 비판적 아버지 자아(CP)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에서 높았고, 양육적 아버지 자아(NP)와 어린 자아(A), 순응적 어린이 자아(AC)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에서 높았으나 이는 의미 없는 차이로 나타났다($p>.05$). 이에 반해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상태(FC)에서는 남자 평균 11.76($SD=3.60$), 여자 평균 12.93($SD=3.32$)로 나타나 t-test 결과 $t=-2.98(<.05)$ 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천진스럽게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상태(FC)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남녀 대학생의 자아상태 분포

자아상태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비판적 아버지 자아	남자	121	10.27	3.05	0.75
	여자	176	10.02	2.78	
양육적 아버지 자아	남자	121	12.30	3.15	-0.41
	여자	176	12.45	3.17	
어린 자아	남자	121	10.92	3.02	-0.02
	여자	176	10.93	2.61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남자	121	11.76	3.60	-2.98*
	여자	176	12.93	3.32	
순응적 어린이 자아	남자	121	10.45	3.65	-0.24
	여자	176	10.54	3.39	

* $p<.05$

2. 대학생의 MBTI 선호지표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

대학생의 MBTI 선호지표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MBTI에서 나타난 4개의 성격경향성 중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이 외부지향적인 외향성(E)과 내부지향적인 내향성(I)이 성향에 따라 자아상태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성격경향성에 따라 자아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에너지 방향 측면에서의 성격경향성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내향적인 학생과 외향적인 학생 두 집단 간에 자아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은 내향적인 학생과 외향적인 학생 집단 사이의 의미 있는 차이가 양육적 아버지 자아(NP)와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상태(AC)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t-test 결과, 양육적 아버지 자아(NP)에서는 $t=4.56(<.0001)$ 로 유의수준 0.1%에서,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FC)에서는 $t=8.39(<.0001)$ 로 유의수준 0.1%에서,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상태(AC)에서는 $t=-4.66(<.001)$ 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외향적인 학생은 내향적인 학생보다 양육적 아버지 자아를 더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유분방하고 천진스럽게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반면 내향적인 학생은 외향적인 학생보다 더욱 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판적 아버지 자아(CP)에서는 외향적이 학생이 내향적인 학생보다, 어른 자아상태(A)에서는 내향적인 학생이 외향적인 학생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너지 방향 측면에서의 대학생의 성격경향 자아상태의 차이 분석

자아상태	성격 경향성	N	평균	표준편차	t
비판적 아버지 자아	E I	135 162	10.32 9.96	3.12 2.73	1.05
양육적 아버지 자아	E I	135 162	13.19 11.56	3.21 2.92	4.56***
어른 자아	E I	135 162	10.90 10.98	2.94 2.65	-0.24
자유스런 어린 자아	E I	135 162	14.13 11.10	3.10 3.12	8.39***
순응하는 어린 자아	E I	135 162	9.57 11.39	3.30 3.41	-4.66***

*** $p < .001$

2) 정보수집 방법 측면에서의 성격경향성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정보수집 방법 측면에서 대립되는 두 개의 경향성 즉 감각적 학생과 직관적 학생 사이에 자아상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즉 감각적(S) 학생 집단과 직관적(N) 학생 집단 사이에는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따르면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에서는 직관적(N) 학생집단이 감각적(S) 학생집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5$) 그 외 나머지 자아상태 즉 비판적 아버지 자아(CP)와 양육적 아버지 자아(NP), 합리적 성인 자아(A),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AC) 상태에서는 두 집단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4> 정보수집 방법 측면에서의 대학생의 성격경향성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 분석

자아상태	성격 경향성	N	평균	표준편차	t
비판적 어린이	S	194	10.28	3.03	1.25
자아	N	103	9.83	2.66	
양육적 아버지	S	194	12.24	3.15	-0.43
자아	N	103	12.41	3.17	
어른 자아	S	194	11.03	2.83	0.68
	N	103	10.80	2.69	
자유스런	S	194	12.03	3.46	-3.09**
어린이 자아	N	103	13.31	3.30	
순응하는	S	194	10.76	3.53	1.31
어린이 자아	N	103	10.20	3.37	

** $p < .01$

3) 판단 방식 측면에서의 성격경향성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판단 방식 측면에서 대립되는 두 개의 경향성 즉 사고적(T) 학생과 감정적(F) 학생 사이에 자아상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는 비판적 아버지 자아상태(CP)에서 사고적(T) 학생이 감정적(F) 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감정적(F) 학생의 비판적 아버지 자아상태(CP)에 대한 평균은 9.27 (SD=2.86) 이었고, 사고적(T) 학생의 평균은 10.82(SD=2.78)이었다. 여기에 대한 t-test 결과 $t = -4.72 (< .0001)$ 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적인 성인 자아(A)에서도 사고적(T) 학생이 감정적(F) 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적(F) 학생의 합리적 성인 자아상태(A)에 대한 평균은 10.56(SD=3.05)이었고, 사고적(T) 학생의 평균은 11.25(SD=2.52)이었다. 여기에 대한

t-test 결과 $t=-2.13(<.05)$ 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양육적 아버지 자아(NP),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FC),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상태(AC)에서는 감정적(F) 학생이 사고적(T) 학생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표 5> 판단 방식 측면에서의 대학생의 성격경향성에 따른 자아상태의 차이 분석

자아상태	성격 경향성	N	평균	표준편차	t
비판적 아버지 자아	F	131	9.27	2.86	-4.72***
	T	166	10.82	2.78	
양육적 아버지 자아	F	131	12.52	3.42	1.06
	T	166	12.13	2.94	
어른 자아	F	131	10.56	3.05	-2.13*
	T	166	11.25	2.53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F	131	12.60	3.42	0.53
	T	166	11.38	3.50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F	131	10.69	3.33	0.42
	T	166	10.52	3.56	

* $p<.05$ *** $p<.001$

4) 생활양식 측면에서의 성격경향성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표 6>을 통해서 판단적인(J) 학생이 지각적인(P) 학생보다 비판적 아버지 자아(CP)와 합리적 성인 자아상태(A),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FC)에서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판적 아버지 자아(CP)에 대한 판단적인(J) 학생과 지각적인(P) 학생들의 평균을 t-test 결과 $t=2.60(<.01)$ 이었고 A에 대한 t-test 결과는 $t=3.91(<.01)$ 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FC)에 대한 t-test결과는 $t=-2.00(<.05)$ 으로 판단적인 (J) 학생과 지각적인(P) 학생 집단 사이에는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상태(FC)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적 아버지 자아상태(NP)에서는 판단적인(J) 학생이,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상태(AC)에서는 지각적인(P) 학생이 약간 높았지만 이 차이는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6> 생활양식 측면에서의 대학생의 성격경향성에 따른 자아 상태의 차이 분석

자아상태	성격 경향성	N	평균	표준 편차	t
비판적 아버지 자아	J	128	10.60	3.03	2.60**
	P	169	9.73	2.74	
양육적 아버지 자아	J	128	12.40	2.88	0.45
	P	169	12.23	3.36	
어른 자아	J	128	11.66	2.59	3.91**
	P	169	10.41	2.82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J	128	12.00	3.42	-2.00*
	P	169	12.80	3.44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J	128	10.53	3.57	-0.21
	P	169	10.62	3.41	

* $p<.05$ **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대학생의 남녀별 자아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비판적 아버지 자아(CP)와 양육적 아버지 자아(NP), 어른 자아(A), 순응적 어린이 자아(AC)에서 남녀별 의미 있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상태(FC)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시절에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자기 개성대로 표현하고, 천진스럽고, 명랑하고, 자유분방하고, 유쾌한 일을 찾아 즐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은현(1998)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여학생의 자아상태는 20대에서 30대로 되면서 또 결혼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양육적 어버이 자아와 순응적 어린이 자아에서 성차가 없다는 결과는 20-30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은현(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 비판적 어버이 자아(CP)와 어른 자아(A)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고 한 성은현의 연구와 여자가 남자 보다 양육적이고 순응적인 자아상태가 높다고 한 베스트와 윌리엄(Best & Williams 1993)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지니는 모성으로 인해 통념상 여성이 남성보다 헌신적이고 온정적이며 보호적·순응적일 것이라는 인식(서준석 2001)과는 달리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남을 돌보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에 성별 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된 남녀평등, 성차별,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1900년대부터 여성의 사회 활동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상승한 사회적 배경이 이들 대학생의 자아상태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핵가족화로 인해 이들 대학생이 자라온 가정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의사결정권이 높아지는 가정 문화의 변천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상태와 성격경향성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는 각 개인의 성격은 자아상태 속에서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 기술될 수 있다고 한 듀세이(Dusay 1972)의 에너지 항상성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대학생의 자아상태는 각 성격측면별로 나타나는 이들의 성격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에너지 방향 측면에서는 외향적인 학생이 내향적인 학생보다 양육적 어머니 자아를 더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유분방하고 천진스럽게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반면 내향적인 학생은 외향적인 학생보다 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 방법 측면에서는 직관적(N) 학생 집단이 감각적(S) 학생 집단보다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C)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판단 방식 측면에서는 사고적(T) 학생이 감정적(F) 학생보다 비판적 어머니 자아(CP)와 합리적인 성인 자아(A)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양식 측면에서는 판단적인(J) 학생이 지각적인(P) 학생보다 비판적 어머니 자아(CP)와 합리적 성인 자아(A) 그리고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FC)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아상태와 성격경향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마이어와 브릭스(Mayer & Briggs)에 의해 개발된 성격유형 검사에서 제시된 각 성격경향성의 특징과 교류분석 이론에서 제시된 각 자아상태의 특징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즉 마이어와 브릭스(Mayer와 Briggs)의 성격유형 검사에서는 “외향성”의 특징을 “사교적이며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향성”의 특성이 바로 자아상태에서도 “자유분방하고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로 표현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논리적·분석적이고 원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사고형의 특징이 자아상태에서는 합리적인 성인 자아와 연관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사고형의 특징이 비판적 어머니 자아의 특성과 서로 연관되는 요인일 것으로 파악된다. 생활 양식의 측면에서도 정리정돈과 계획을 중시하는 판단형의 특징이 합리적인 성인 자아를 높여주고 융통성을 발휘하며 어떠한 상황에 적응해 가는 인식형보다는 통제와 조정의 경향을 보이는 판단형이 비판적인 어머니 자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자아상태는 성격의 심리 기능 유형

에 따라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며, 성격적 특성이 자아상태의 에너지 분배와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 결과에서도 서준석(2001)이 제시한 바와 같이 성격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자아상태에 분배되어 있는 심리적 에너지도 일정한 방향이 있고 이에 따라 성격이나 자아상태 모두는 심리적인 에너지의 역동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자아상태는 성격경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개인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인 면과 출생 후 접하게 되는 환경적인 면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성격경향성은 그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성격경향성과 자아상태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 인간의 정신 기능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소영, 1997, “사회사업 면접을 위한 내담자의 기질과 자아상태간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김정택·심혜숙, 1991, 『MBTI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 연구소.
- 김진호·백미옥, 1995, “국가대표 선수들의 Personality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체육학논문집』, 23, 13-30.
- 남경숙, 1995, “MBTI의 성격유형과 Ego-gram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울산.
- 방희정, 1996, 『성고정 관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실제』, 김태련외 5인. 여성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서준석, 2001,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MBTI의 4가지 심리기능과 교류분석의 Ego-Gram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성은현, 1998, “성별, 결혼, 연령이 성격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3(1), 51-63.
- 송현중, 1998, “이코그램 유형과 대학생활 적응”. 여수대학교 『논문집』, 13(1), 123-135.
- 신정혜, 200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7, 67-90.
- 여춘근, 이영호, 1997, “전문대학생의 자아상태 활성화와 인간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류분석적 집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7, 67-90.
- 우재현, 1993, “어린이 인성개발 프로그램 및 청소년 인성개발 프로그램”. 대구: 정암서원.
- , 1997, “교류분석(TA)의 성격요인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 정영숙, 1998,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교류분석과 계슈탈트치료 연구』, 1(1), 87.

- 제석봉, 1996, 『인간관계심리학』, 대구 : 미루나무.
- 이병래, 1998, “유치원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3(2).
- 이숙, 2003,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 활성화를 위한 교류분석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 12(3), 279-286.
- 이순형, 1995, 『여성의 심리(하)』, 양서원.
- 장휘숙, 1996, 『여성 심리학-여성과 성차』. 서울:박영사.
- 조숙자, 1996, 『사회 행동의 발달과 성차』. 김태련 외 5인. 여성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중앙일보(서울), 1984.1.25. 3면.
- 최태영 · 이길홍 · 민병근, 1985, “학생 청소년의 ABO 혈액형과 우울성향간의 관계분석”. 신경정신의학. 24(4).
- 한국교류분석 협회 1994, “교류분석(TA) 체크리스트”, 대구: 정암서원.
- Berne, E. 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 Best, D. L., & Williams, J. E. 1993, A cross-cultural viewpoint. In A.E. Beall & R.J. Sternberg(Eds.), *The psychology of gender*(pp.215~248). New York: Guilford Press.
- Dusay, J. M. 1972, “Egogram and constancy hypothesi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2. 133-137.
- 1977, *Egograms*. New York: Bantam Books.
- 1977, *Egograms: How I see you and you see me*. New York: Harper & Row.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oulding, R. S. 1972, *New directions in transactional analysis*. In Sager DS & Kaplan Hs. *Progress in Group and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105-134.
- Jung, C. G. 1971, *Psychological types*. H. G. Baynes, Trans.

- revised by R. F. C. Hull. Volume 6 of the collected work of C. G. Jung.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21)
- Jung, C. G. 1976, *Psychological typ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rris. T. A. 1975, *I'm OK You're OK*. 이형득, 이성태 공역, 인간관계 개선과 치료,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1984.
- Harway, M., & Moss, L. T. 1980, Sex difference; The evidence from biology. In M.S. Liss(Ed.), *Social and cognitive skills; Sex roles and children's play*(pp.22~44). New York: Academic Press.
- Havighurst, R. J. 1968,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The Gerontologist.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Thomas, R. W. 1978, A Group comparison of teaching transactional analysis relative to internalization, knowledge and communication skills. Ph. D. dissertation. Idaho state University.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Waldrop, M., & Halerson, C. 1975, Intensive and extensive peer behavior;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436, 19-26.
- <http://sportschosun.wooriun.com>,
<http://stbible.n4.cc>
<http://cafe.daum.net>

University Students' Types of Ego-gram by Gender and MBTI Personality Types

Lee, Soon-joo (Hanbat National University)
Kim, Kwang-ja (Seoul Wom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types of ego-gram and their personality by Ego-gram test based on Berne's personality theory and MBTI test based on Jung's psychological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material data for academic and career counseling and for guidance in university students' human relationship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ypes of ego-gram. And university students' types of eg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with their personality in two dimensions.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olid relations between the types of ego-gram and personality.

Keywords : Types of Ego-gram, Personality, Ego-gram Test, MBTI Test